

지난 12월 27일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기록적 강진과 이로 인한 지진해일은 바다 건너 인근국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해안 지역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재해를 가져왔다. 이미 확인된 사망 및 실종자만도 15만 명을 넘어섰고 있고 이재민은 수백만 명에 달할 것이리라. 현대 문명의 보호막 속에서 영원히 안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일상적 착각은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던가. 인간의 문명도 자연 생태계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 앞에 겸허하고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해일 피해를 당한 지역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해변휴양지들이 산재해 있어 다수의 우리 국민들을 포함한 외국인 휴가객들의 희생이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파리의 상제리해거리의 가로등에는 검은 리본이 달려 있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되는 희생자 가족들의 이름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른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일관된 상황인식과 부실한 대응 체계, 그리고 총체적 무능 앞에 우리 국민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마디로 우왕좌왕이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휴가 중에 당한 사고이니 정부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식의 무책임까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인식인가? 국민들에



불자 세상보기

김 병 관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사고 앞에 우왕좌왕하는 정부

대한 서비스조직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없는 정부의 구태연함에 다시 한번 어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좁은 지구촌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세계에 살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공간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세계 어느 곳에서 발생하는 어떤 재해 상황이건, 우리 국민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해외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

난 관리 체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우선 재난에 대한 예방 기능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안전 상황에 관한 예보 혹은 정보제공 기능은 이의 일부이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NHK의 '해외안전 정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각 지역의 안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자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홍보의 체계적 노력이 행해져야 한다. 다음으로, 재해 발생 시 자국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재난 지역에서 적절한 대응 및 신속한 소개를 포함한 사후적

안전 대책과 구호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재난 관리 체계가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 당국자들의 의식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 개개인이나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의 조직들도 해외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의 체계적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소위 압축적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고 그 결과 경제규모로만 보아서는 세계 주요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지난 몇 년간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이제 다시 성장의 엔진을 돌려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그 경제적 외형에 걸맞는 내실을 갖추기 위한 파나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해외 재난 관리 체계는 그 한 요소이다. 문화적 위상을 갖춘 국가, 자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가, 타국민들의 인정을 받는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외적 내실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선진국들의 시스템을 배우고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존중하며 세계화의 속에서 압축성장을 다시 한번 시도해야 할 때이다.

불자의 눈 는설위행 기명사설

지난 세밀,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 소속사찰인 우이동 보광사에서 절을 차지하기 위한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 한국 불교의 고질적 병폐라고 지적받는 폭력사태가 이제는 사라졌나 했더니, 한국 선불교의 주요한 맥이라 할 수 있는 선학원에서 또 다시 그 추악한 업의 재현을 보게 된 것이다.

폭력의 당사자들은 서로 각각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까마귀들이 내가 조금 더 희다고 다투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밑바닥에 공통적으로 놓여있는, 출가정신을 등진 추악한 탐욕을 어찌 가릴 것인가.

정재는 깨끗하게 모아지고, 깨끗하게 유지되어, 깨끗하게 쓰여져야만 정재이다. 그 정재의 한복판에서 추악한 폭력을 휘두르는 행태는 이미 정재를 정재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웅변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폭력으로 탈취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정재가 아니라 탐욕의 대상일 뿐이다.

삼보정재가 '떡이' 인가?

삼보 정재를 사적인 재산으로 여기는 탐욕과 망집에 사로잡힌 하열한 출가자들이 벌이는 추악한 작태 때문에 불교 전체가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스님들 개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아직도 사찰운영이 사부대중 공동체에 의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아, 스님 개인의 처부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개인으로서의 스님에 반성없이 추종하는 신도들의 의식 또한 스님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를 조장하고 있다. 승보를 청정하고 화합된 공동체를 뜻하는 승보로 '스님들(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로 규정함으로써 각각의 스님들을 중심으로 신도들이 이합집산하게 만든 업보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폭력을 합리화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천만 불자의 개인 눈이 분노를 담아 지켜보고 있다. 단지 스님들 차원에서의 적절한 무마로 이 사태를 넘기려 해서는 안될 일이다. 우선은 눈앞에 벌어진 폭력에 대한 단호하면서도 엄한 단죄가 있어야 할 것이지요. 삼보정재의 운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가 모든 사찰운영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폭력의 망령이 고개를 쳐든 이 사태를 계기로 그 망령의 근거지를 소탕하는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성대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안전 불감증**

선정을 얻은 사람은 다시는 마음이 동요하지 않을 것이니, 마치 물을 아끼는 집에서 독을 잘 쌓아 놓은 것과 같다. 수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혜의 물을 간직하려는 까닭에 선정을 잘 쌓아 그 누실을 막는 것이다. <유교경>

1월 3일, 서울지하철 7호선에서 2년 전 대구지하철 참사와 유사한 지하철 방화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대구지하철 화재 당시 정부가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했던 말이 미봉책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고였다. 이뿐인가. 지하철 당국이나 역무원들의 위기 대처방법은 그때와 별반 다른 게 없었다. 다행히 출근시간 전이어서 혼란이 덜했고,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이처럼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복(公僕)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화재발생 후 승객들이 객차 내 인터폰으로 기관실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불통이었고, 종합사령실, 역무실, 기관실간 비상조치도 없이 불통은 전동차에 승객을 실은 채 운행했으면서도 서로 책임전가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현재 서울지하철의 경우 전동차 내부가 불연소재로 바뀐 경우는 1-4호선만 교체해 마무리되고 7·8호선의 교체율은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는 의례적으로 대책발표와 시정명명을 하고, 일선기관에서 재원부족을 핑계로 미적대며,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고질적 관행이 계속되는 한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치는 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예산부족 타령만 하는 것은 곤란하다. 무사안일 속에 숨은 안전불감증은 더더욱 위험하다. 당국은 언제까지 안전시험대란 도마 위에 시민의 생명을 올려놓을 것인가. ■ 노병철(채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사찰 난투' 이제는 없어야

선학원 보광사에서 새벽이던 폭력배를 동원해서 서로 치고 받고 마치 전장터를 방불케 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접하고 보니 참으로 이번 한심한 스님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동남아 각국에서는 해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데 그 절한 절을 차지하려고 강대들을 동원해 싸우는 꼴이 아니라 한심하게 그지않다.

신도들이 불사에 쓰라고 내는 공양금을 폭력배 동원하는데 쓰다니 참으로 놀랄 일이지 부끄러운 일이다. 화두로 짚어 어떻게 차지하는 법을 생각하느라 고생한 것 같다. 허구한 날 벽만 쳐다보다가 어느 날 문득 절 짚기에 나서야겠다고 생각하신 모양이다. 그러니까 불교가 유머는 것이다. 도경(웃다뉴스)

'현대불교' 신년호를 읽고

'현대불교' 신년호 특집 '우리도 부처님같이'를 읽고 반성을 많이 했다. 나는 과연 불자라고 거듭먹거리면서 부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는지 말이다. 특히 신행지수 체크표를 제공해 준 것은 굉장히 유용한 정보였다.

이번 신년호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끈 기사는 종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었다. 어린 학생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가 마

음의 평안이었다는 것이 신기했지만 불자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웠다. 불자로서 어른들부터 좀더 당당하고, 아이들에게 쉽게 알려줄 수 있는 불교가 되어야 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유용한 기사와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 이지혜성(서울 성동구 성수동)

정법을 믿으시는 불자님들께

부처님은 <금강경> 사구계에서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니 상을 상으로 보지 말 것'이라며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물 거품 같고 번갯불 같고 허깨비와 같고 그림자 같고 연기 같은 것이니 바로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불자들이 사아비 승려나 못된 점쟁이들의 길흉을 내세워서 험박하는 말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을 내세우며 무슨 기도를 해야 하니 기도비로 얼마씩 가져오라고 하거나 영험하고 법력이 있는 스님이 기도하면 액막이가 되는 것이니 열심히 기도해야 어려운 시국을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등의 언설에 휘둘러서 아까운 돈과 시간을 낭비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사람이 된다.

불자라면 정법을 굳게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마음이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만 무너지지 않는 금강과도 같은 힘이 생길 것이다. 황하루(웃다뉴스)

교도소에서 만난 보살님들

인양교도소에서 수행생활을 하고 있는 재소자이다. 소중한 타인의 삶에 큰 아픔을 주었고, 그 죄 값을 갚기 위하여 이렇게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곳에 와서 부처님을 마음에 담았다. 힘들고 아픈 마음에, 원망과 울분으로 가득 찬 마음에, 우연히 읽은 한 구절의 경구는 나의 마음을 흔들며 놓았고 흐린 눈으로 세상을 보던 나의 눈을 맑게 씻어주었다. 그렇게 맺은 불연이 벌써 1년이 넘어간다.

늘 남 탓으로만 여기던 습관을 나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여유와 나보다 남이 먼저라는 배려의 마음, 나누는 기쁨을 배웠다. 마음가득 가지고 있던 많은 근심과 걱정들을 비우고 버리며 사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다. 이 모든게 이곳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보살·법사님들, 스님들 덕분이다.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에 목말라 있던 나에게 불교를 바로 보는 창으로 다가왔다. 현대불교신문이 있었기에 소중한 시간들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 그 고마움에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김승명(가명·인양교도소)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르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짜 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택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기보다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단락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짜 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꾀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수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1334-9490, 334-9491 아간 : 0311706-3060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마니 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리보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중년의 건강과 활력을 부모님에게는 건강한 노후를 자녀에게는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가족 건강이 행복의 최우선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가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55-1114 주현풍F&B HYUNPUNG F&B CO., LTD.